


“국민과 함께 가는 행복의 길,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보도자료		대한수산물, 해양수산부 30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배포 일시		2014.8.22(금) 총 5매(본문 2, 첨부 3)		
담당 부서	해운정책과	담당자	• 과장 이상문, 팀장 김인경, 사무관 서은정 • ☎ 044-200-5710, 5722, 5723	
보도일시		2014년 8월 25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24(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해수부장관, 韓中日간 물류협력과 해양안전 정책 공유 필요 강조 **25일, 제5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기조연설에서 밝혀**

이주영 해양수산부장은 25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5차 韓·中·日 교통물류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삼국간 물류협력의 중요성과 해양안전 관련 정책 공유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는 삼국의 교통물류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6년 舊 해양수산부 주도로 설립되었으며, 서울에서 1회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매2년마다 한국, 중국, 일본의 순서로 개최하고 있다.

교통물류장관회의는 3국의 교통물류 관련 제도와 절차 등이 서로 달라서 발생하는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그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네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3국간 선박 입출항, 컨테이너 이동 정보 등을 연계하는 시스템인 NEAL-NET*(11.12월 부터 구축·운영 중)의 공유 대상 항만과 정보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ASEAN 등 역외국가로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표방할 계획이다.

* NEAL-NET(Northeast Asia Logistics Information Service Network)

이에 따라 한·중·일간 물류 정보의 공유를 통해 위험물 관리 등 안전성을 확보하고, 화주의 창고·재고관리 및 운수업체의 배차관리 등에 활용하는 등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중간 육상(트럭)과 해상(페리)을 연계한 복합운송*을 활성화하고 한·일간 시범사업을 확장함으로써 삼국간 물류 효율과 운송의 편리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복합운송 : 중국(한국)에서 화물을 적재한 트럭(트레일러, 트레일러+트랙터, 카고트럭 등)을 카페리 운송 후 중국(한국) 목적지까지 운송

이와 함께, 우리측 제안에 따라 연안해운 안전 관련 정책 공유 및 3국간 운행하는 국제여객선의 안전 관리를 위한 상호 노력,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한 3국의 협력 의지를 공동선언문에 새롭게 반영할 예정이다.

이주영 해양수산부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3국간 물류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한편, 각국의 연안여객선 안전정책과 사고 대응방안 등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국제적 공조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한·일 양자회담을 갖고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정보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해양을 둘러싼 한·중·일 간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3국 교통물류장관회의가 동북아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3국간 물류 협력을 위한 공식채널이라는 점에서 동 회의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서은정 사무관(☎ 044-200-57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장관회의 개요 및 성과 >

◆ 개 요

- 동북아 물류네트워크 강화 및 물류효율 제고를 위해 '05년 우리측 제안으로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구성 합의, 한→일→중 순서로 2년마다 개최

* 1차('06, 한국 서울), 2차('08, 일본 오카야마), 3차('10, 중국 청두), 4차('12, 한국 부산)

◆ 주요성과

- 한-중 해상육상 복합운송 협정('10.9월), 인천-위해간 운송 개시('10.12월)

* ('14.6월 기준) 총 652대의 트레일러가 한국 3개 항구(인천, 평택, 군산)와 중국 6개 항구(위해, 청도, 연운 등)를 상호주행, 중국측 운행구역은 산둥성 이내→강소성 전역으로 확대

- 한·일 해상육상 복합운송 시범사업 합의의사록 채택('12.7월), 시범사업 개시('13.5)

* (구간) 부산-시모노세키, (품목) 자동차 부품 ('13 운행실적) 1,080대(1주 평균 20대)

** (사업확대 논의) 부산-하카다, 부산-오사카 구간 추가여부, (품목확대) 전자기기·반도체 등

- 선박입출항 및 항만컨테이너 이동정보 공유 확대(NEAL-Net)

* 공유정보 확대: 선박입출항('11)→컨테이너상태·통계('14.9) / 선박입출항 공유항만 확대 : 4개→14개('14.9)

** 3국간 사용자 통합인증: 시스템 개발('13)→한·중·일 테스트('14.8)→서비스 개시('14.9)

- (기타) 투자진출 가이드북 발간('12), 재사용 파렛트 활성화 공동연구 추진('14) 등

□ 일시/장소 : '14.8.24(일)~26(화)/Yokohama Bay Hotel Tokyu

□ 각국 대표단

○ 한국 : 해양수산부장관(수석), 해운물류국장 등 정부대표 11명

○ 중국 : 교통운수부차관(췌우 하이타오), 국제합작사 부사장 등 10명

○ 일본 : 국토교통성대신(오타 아키히로), 차관, 국제협력국장 등 16명

□ 주요 일정

월 일	시 간	내 용
8.24(일)	15:30 ~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대비 국장회의
8.25(월)	09:00 ~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차 교통물류장관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조연설 - 공동선언문 논평 및 채택
	11:30 ~ 1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선언문 서명식 및 기자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선언문 서명식, 기념촬영 - 수석대표 연설 - 기자회견
	14:00 ~ 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류발전 포럼 축사 한·일 양자회담
	17:30 ~ 17: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럼만찬 축사
8.26(화)	08:30 ~ 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시찰(요코하마 항 등)

참고 2

한중일 닐넷(NEAL-Net) 추진 현황

◆ 삼국 간 막힘없는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물류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물류정보 표준화 기술연구, 기술교환, 교육 등 협력

- 한·중·일 간 선박입출항 및 컨테이너 이동정보 연계체계 구축
- 물류통계서비스 체계 구축 및 물류정보 공유 항목 및 대상 확대

* 한국의 SP-IDC, 중국의 LOGINK, 일본의 COLINS를 상호 연계하여 물류정보 공유

□ 추진 성과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한·중·일 NEAL-Net 상호협력 MOU 체결 및 추진체계 구성 ('10.12, 중국 항저우)

- 한·중·일 삼국 간의 주요항*을 기항하는 선박입출항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NEAL-Net 구축 ('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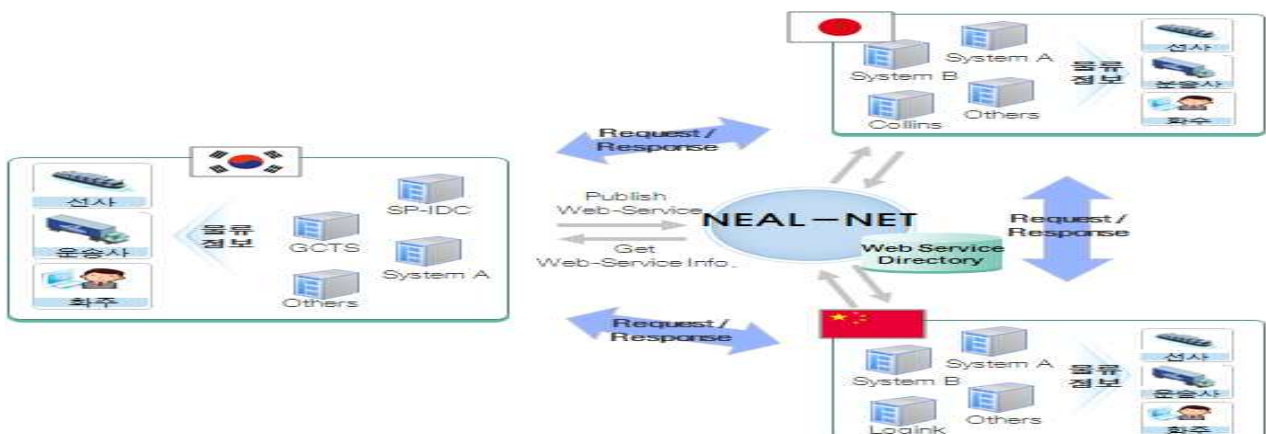
* 한국(부산), 중국(닝보항), 일본(도쿄항, 요코하마항)

- 이용자 공동인증 및 공유대상 항만·정보 확대('14.9월부터)

* 공유항만 : 한국(1개 ⇒ 3개항), 중국(1개 ⇒ 7개항), 일본(2개 ⇒ 4개항)

☞ 한국(부산, 인천, 광양), 중국(닝보, 칭다오, 잉코우, 엔타이, 웨이하이, 르자오, 렌원강), 일본(도쿄, 요코하마, 고베, 오사카)

* 공유정보 : 1종(선박입출항) ⇒ 3종(선박입출항, 컨테이너 이동, 통계 정보)



□ 향후 일정

- NEAL-Net 간사회의 개최(일본) : '14. 11월